

Korean Bible: Mark

1: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

1: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

1: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

1:4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

1: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

1:6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

1:7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`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

1: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'

1: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

1:10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오심을 보시더니

1:11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`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하노라' 하시니라

1: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신지라

1:13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

1: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

1:15 가라사대 `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!'
하시더라

1: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부라

1:17 예수께서 가라사대 `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' 하시니

1: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

1: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

1:20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샅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

1:21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

1:22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

1:23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

1:24 `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?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?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'

1:2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`잠잠하고 그사람에게서 나오라 !' 하시니

1:26 더러운 귀신이 그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

1:27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`이는 어찌이뇨 권세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' 하더라

1: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

1: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 가시니

1: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

1: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

1:32 저물어 해 질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

1:33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

1:34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

1: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

1:36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

1:37 만나서 가로되 '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'

1:38 이르시되 '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' 하시고

1: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

1:40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'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'

1:41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'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!' 하신대

1:42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

1:43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

1:44 가라사대 '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' 하셨더니

1: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

2:1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

2: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

2: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

2:4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

2:5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'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' 하시니

2: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

2:7 '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?'

2: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'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?'

2: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?

2: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'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

2:11 '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!' 하시니

2: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'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' 하더라

2: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

2: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'나를 좇으라 !'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

2: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라

2: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

2: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'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' 하시니라

2: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'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?'

2:19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'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

2: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

2: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

2: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' 하시니라

2: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

2: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'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?'

2:25 예수께서 가라사대 '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?'

2: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?'

2: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

2: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!'

3: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

3:2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

3: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'한가운데 일어서라 !' 하시고

3:4 저희에게 이르시되 '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?'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

3:5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'네 손을 내밀라'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

3: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

3: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좃으며

3: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
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

3:9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
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

3: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
하여 뾰근히 함이더라

3: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
'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' 하니

3: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

3: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

3:14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
하며

3:15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

3:16 이 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

3: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
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

3: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밋
다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

3:19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

3: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

3:21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

3: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

3:23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`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?

3: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

3: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

3:26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

3: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

3: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

3:29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' 하시니

3:30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

3:31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

3: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`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'

3:33 대답하시되 `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?' 하시고

3:34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`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

3: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'

4: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

4: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

4:3 `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

4: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

4: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

4:6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

4: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

4: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' 하시고

4:9 또 이르시되 `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' 하시니라

4: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

4:11 이르시되 `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

4:12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' 하시고

4:13 또 가라사대 '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?

4: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

4:15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

4: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

4: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간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

4:18 또 어떤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

4:19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

4:20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'

4:2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'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

4: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

4: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'

4:24 또 가라사대 `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

4:25 있는자는 받을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'

4:26 또 가라사대 `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

4: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

4: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

4: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'

4:30 또 가라사대 `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

4: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

4: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'

4: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

4: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 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것을 해석하시더라

4:35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`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' 하시니

4:36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

4: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

4: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'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?' 하니

4: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'잠잠하라! 고요하라!'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

4: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'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?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?' 하시니

4:41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'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' 하였더라

5: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

5: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

5: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

5: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 할 힘이 없는지라

5: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

5: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

5: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'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!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?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' 하니

5: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'더러운 귀신아 !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' 하셨음이라

5:9 이에 물으시되 '네 이름이 무엇이냐 ?' 가로되 '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' 하고

5:10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

5: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

5:12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'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' 하니

5: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

5: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

5: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하더라

5: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

5:17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

5: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

5:19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'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' 하신대

5: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

5: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

5:22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

5:23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'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' 하거늘

5: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

5:25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

5:26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

5: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

5: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

5: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

5: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'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?' 하시니

5:31 제자들이 여짜오되 '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?' 하되

5: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

5:33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

5:34 예수께서 가라사대 '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!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!'

5:35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'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?'

5: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'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!' 하시고

5: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치 아니하시고

5: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흰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

5:39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'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?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' 하시니

5:40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

5: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'달리다굼 !'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

5: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

5: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

6: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좃으니라

6: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`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

6: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?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?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?'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

6:4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`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' 하시며

6: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

6:6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

6:7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

6:8 명하시되 `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

6: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' 하시고

6:10 또 가라사대 `어디서든 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

6: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' 하시니

6: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

6: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

6: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`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' 하고

6:15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

6:16 헤롯은 듣고 가로되 `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' 하더라

6: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

6: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`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' 하였음이라

6: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것은

6: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

6:21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

6: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밋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'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' 하고

6:23 또 맹세하되 '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' 하거늘

6:24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'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?' 그 어미가 가로되 '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' 하니

6:25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'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' 한대

6: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

6: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'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'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

6:28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

6: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

6: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

6:31 이르시되 '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'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

6: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

6:33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

6: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

6: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'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

6: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'

6:37 대답하여 가라사대 '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' 하시니 여짜오되 '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?'

6:38 이르시되 '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? 가서 보라'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'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' 하거늘

6:39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

6:40 떼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

6:41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

6:42 다 배불리 먹고

6: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

6:44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

6: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

6: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

6: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

6:48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

6:49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

6:50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'안심하라 ! 내니 두려워 말라 !' 하시고

6:51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

6:52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

6: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

6: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

6: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

6:56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

7: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

7: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

7:3 (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

7: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

7: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`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?'

7:6 가라사대 `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

7: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

7: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'

7:9 또 가라사대 `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

7: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

7:11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

7:12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

7:13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' 하시고

7: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'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

7: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

7: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' 하시고

7: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

7:18 예수께서 이르시되 '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?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?

7:19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'

7:20 또 가라사대 '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

7: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, 도적질과, 살인과,

7:22 간음과, 탐욕과, 악독과, 속임과, 음탕과, 흘기는 눈과, 훼방과, 교만과, 광패니

7: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'

7: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 수 없더라

7: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
그 발 아래 엎드리니

7: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
주시기를 간구하거늘

7:27 예수께서 이르시되 `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
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'

7:28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`주여,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
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'

7:29 예수께서 가라사대 `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
나갔느니라' 하시매

7: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

7: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
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

7:32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
간구하거늘

7: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
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

7: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`에바다 !' 하시니 이는
열리라는 뜻이라

7: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

7:36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'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' 하시되
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

7: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'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
병어리도 말하게 한다' 하니라

8:1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
이르시되

8:2 '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
것이 없도다

8:3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
온 사람도 있느니라'

8:4 제자들이 대답하되 '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
수 있으리이까 ?'

8: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개나 있느냐 ?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
하거늘

8: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
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

8: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
놓게 하시니

8: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

8: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흠어 보내시고

8: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

8: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

8:12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`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?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' 하시고

8:13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

8:14 제자들이 떡 가져 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

8:15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`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' 하신대

8:16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`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' 하거늘

8: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`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?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? 너희 마음이 둔하냐 ?

8: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? 또 기억지 못하느냐 ?

8: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?' 가로되 `열 둘이니이다'

8:20 `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광주리를 거두었더냐 ?' 가로되 `일곱이니이다'

8:21 가라사대 `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?' 하시니라

8:22 벧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

8:23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'무엇이 보이느냐?' 물으시니

8:24 우러러보며 가로되 '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 가는 것을 보나다' 하거늘

8: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

8: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'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' 하시니라

8:27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'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'

8:28 여짜와 가로되 '세례 요한이라 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'

8:29 또 물으시되 '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?'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'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' 하매

8:30 이에 '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' 경계하시고

8: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

8:32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

8: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'사단아!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' 하시고

8: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'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'

8: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'

8: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

8: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?

8: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'

9: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'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' 하시니라

9: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

9: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

9: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

9: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'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,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,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' 하니

9:6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

9:7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'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' 하는지라

9:8 문득 둘러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

9:9 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'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' 하시니

9:10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'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?' 하고

9:11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'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?'

9:12 가라사대 '엘리야가 과연 먼저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

9: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' 하시니라

9:14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

9: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

9:16 예수께서 물으시되 '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?'

9:17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'선생님,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

9:18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'

9:19 대답하여 가라사대 '믿음이 없는 세대여 !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' 하시매

9: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

9:21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'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?' 하시니 가로되 '어릴 때부터니이다

9:22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'

9:23 예수께서 이르시되 '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?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!' 하시니

9: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'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!' 하더라

9:25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'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!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' 하시매

9:26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

9: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

9: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`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?`

9:29 이르시되 `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` 하시니라

9:30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

9: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

9: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

9: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`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?` 하시되

9:34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? 하고 쟁론하였음이라

9:35 예수께서 앉으사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`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` 하시고

9:36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

9:37 `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`

9: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`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`

9:39 예수께서 가라사대 `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
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

9: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

9:41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
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

9: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
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

9: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
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

9:44 (없 음)

9: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
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

9:46 (없 음)

9: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
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

9: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

9:49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

9: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
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! 하시니라

10: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

10: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'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?'

10:3 대답하여 가라사대 '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?'

10:4 가로되 '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'

10: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'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

10:6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

10: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

10: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

10: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' 하시더라

10: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일을 묻자온대

10:11 이르시되 '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

10: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'

10:13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

10:14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`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

10: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' 하시고

10: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

10: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`선한 선생님이여,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?'

10:18 예수께서 이르시되 `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?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

10: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속여 취하지 말라,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'

10:20 여짜오되 `선생님이여,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'

10: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`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!' 하시니

10: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

10: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`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' 하시니

10: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

10:25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대

10:26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`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?'
하니

10:27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`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
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!'

10:28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`보소서,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
좃았나이다'

10:29 예수께서 가라사대 `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
위하여 집이나, 형제나, 자매나, 어머니, 아비나, 자식이나, 전토를 버린 자는

10: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
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

10: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'

10: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
놀라고 좃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
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

10:33 `보라,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
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

10: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
살아나리라' 하시니라

10: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'선생님이여,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'

10:36 이르시되 '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?'

10:37 여짜오되 '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,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'

10:38 예수께서 가라사대 '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?'

10:39 저희가 말하되 '할 수 있나이다' 예수께서 이르시되 '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'

10: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'

10: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

10: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'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(大人)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'

10: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'

10: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'

10: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'

10:46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

10: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`다윗의 자손 예수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!' 하거늘

10: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`다윗의 자손이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!' 하는지라

10: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`저를 부르라'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`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' 하매

10:50 소경이 겹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

10: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`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?' 소경이 가로되 `선생님이여, 보기를 원하나이다'

10:52 예수께서 이르시되 `가라,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!'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

11: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

11:2 이르시되 `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

11: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?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!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' 하시니

11: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

11:5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'나귀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?'
하매

11:6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

11: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
예수께서 타시니

11:8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퍼며

11: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'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
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!

11: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!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'
하더라

11: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
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

11:12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

11: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
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
아님이라

11:14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'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
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'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

11:15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
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
의자를 둘러 앉으시며

11:16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

11: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`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?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' 하시매

11: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

11:19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

11:20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

11: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`랍비여,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'

11: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`하나님을 믿으라 !

11: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!

11: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

11: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' 하셨더라

11:26 (없 음)

11:27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

11:28 가로되 '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?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?'

11:29 예수께서 가라사대 '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'

11: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? 사람에게로서냐? 내게 대답하라'

11:31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'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? 할 것이니'

11:32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?'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'

11:33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'우리가 알지 못하노라?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'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' 하시니라'

12:1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'한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좁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'

12: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'

12:3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'

12: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'

12: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'

12:6 오히려 한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
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

12:7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,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
것이 되리라 하고

12: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

12: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
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

12: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

12: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
못하였느냐 ? 하시더라

12:12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
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

12:13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
보내매

12:14 와서 가로되 `선생님이여,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
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
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것이 가하니이까 ?
불가하니이까 ?

12:15 우리가 바치리이까 ? 말리이까 ?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
이르시되 `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?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'
하시니

12: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'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?' 가로되
'가이사의 것이니이다'

12:17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'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
하나님께 바치라'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

12: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

12:19 '선생님이여,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
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
하였나이다

12: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

12: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세째도 그렇게 하여

12:22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

12:23 일곱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
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?

12:24 예수께서 가라사대 '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
오해함이 아니냐 ?

12: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
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

12:26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
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
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
하였느냐

12: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' 하시니라

12:28 서기관 중 한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'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?'

12: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'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! 들으라 주,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

12: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

12: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'

12:32 서기관이 가로되 '선생님이여,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

12: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'

12:34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'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'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

12: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'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?

12:36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

12: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?' 하시더라
백성이 즐겁게 듣더라

12: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'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
문안 받는 것과

12:39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

12:40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
판결이 더욱 중하리라' 하시니라

12:41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
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

12: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

12: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'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

12:44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
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' 하셨더라

13: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'선생님이여,
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?'

13:2 예수께서 이르시되 '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?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
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' 하시니라

13:3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
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

13:4 `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
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?'

13:5 예수께서 이르시되 `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

13: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
미혹케 하리라

13:7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
아직 아니니라

13: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
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

13: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
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
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

13: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

13: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
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
성령이시니라

13:12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
죽게 하리라

13:13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
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

13: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(읽는 자는 깨달을진저)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

13: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

13:16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

13:17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

13:18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

13:19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

13: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

13:21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

13: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

13: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

13:24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

13: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

13: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

13:27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 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

13: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

13: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을 알라

13: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

13: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

13: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

13: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

13: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

13: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, 밤중엘는지, 닭 울 때엘는지, 새벽엘는지,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

13: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

13: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

14: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

14:2 가로되 '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' 하더라

14: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

14:4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'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

14: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'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

14:6 예수께서 가라사대 '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

14: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

14:8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

14: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' 하시니라

14:10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

14:11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

14: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'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?' 하며

14:13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'성내(城內)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가서

14:14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'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? 하시더라 하라

14:15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' 하신대

14: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

14:17 저물매 그 열 둘을 데리시고 와서

14: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'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' 하신대

14:19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'내니이까 ?'

14:20 이르시되 '열 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

14:21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뻔 하였느니라' 하시니라

14: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'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' 하시고

14: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

14:24 가라사대 '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

14: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' 하시니라

14:26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

14: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`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

14: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'

14:29 베드로가 여짜오되 `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'

14:30 예수께서 가라사대 `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'

14: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`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'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

14:32 저희가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

14: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

14:34 말씀하시되 `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' 하시고

14: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

14:36 가라사대 `아바, 아버지여 !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' 하시고

14:37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`시몬아, 자느냐 ? 네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?

14: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!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' 하시고

14: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

14:40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

14:41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`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,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

14:42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'

14:43 말씀하실 때에 곧 열 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

14: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`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' 하였는지라

14: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`랍비여' 하고 입을 맞추니

14:46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

14:47 곁에 섰는 자 중에 한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

14: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`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?

14: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' 하시더라

14: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

14: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

14:52 베 흠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

14:53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

14: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좃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

14: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

14: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

14: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

14:58 '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' 하되

14:59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

14: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'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?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?' 하되

14: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'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?'

14:62 예수께서 이르시되 '내가 그니라 !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' 하시니

14: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'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

14:64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?'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

14:65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'선지자 노릇을 하라'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

14: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

14:67 베드로의 볼 찜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'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' 하거늘

14:68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'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' 하며 앞뜰로 나갈새

14:69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'이 사람은 그 당(黨)이라' 하되

14: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'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(黨)이니라'

14:71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'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' 하니

14: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

15: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

15:2 빌라도가 묻되 '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'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'네 말이 옳도다' 하시매

15: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 하는지라

15:4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'아무 대답도 없느냐?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' 하되

15: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

15:6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

15:7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

15: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

15:9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'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?' 하니

15:10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

15: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

15: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'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?'

15:13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'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'

15:14 빌라도가 가로되 '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?'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'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' 하는지라

15: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

15:16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

15: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

15:18 예(禮)하여 가로되 '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' 하고

15: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

15:20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

15: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

15: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(번역하면 해골의 곳)에 이르러

15: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

15: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

15:25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

15:26 그 위에 있는 죄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

15: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

15:28 (없음)

15: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'아하,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

15: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' 하고

15: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'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

15: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'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

15:33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

15:34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'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!'
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[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?]
하는 뜻이라

15: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'보라 엘리야를 부른다' 하고

15:36 한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
가로되 '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' 하더라

15: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

15: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

15: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'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' 하더라

15: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

15: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

15:42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

15: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

15: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? 묻고

15: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

15:46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

15:47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

16: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

16: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

16:3 서로 말하되 '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' 하더니

16:4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

16: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

16:6 청년이 이르되 `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

16: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' 하는지라

16:8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

16:9 (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 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

16: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

16:11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

16:12 그 후에 저희 중 두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

16:13 두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

16:14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

16:15 또 가라사대 `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

16: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

16: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

16: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' 하시더라

16: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

16: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)